믿음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

(역대하 18:1~3)

1.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 이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마음이 좋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앞에서 언급 된 대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까워하시고 깨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통치의 근간을 튼튼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자신만 다윗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하기 위해 선생들을 온 백성들에게 파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 판을 깨지 않으시기 위하여 주변 나라들과 왕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사밧 왕은 왜 북 왕국의 아합 왕과 결탁하게 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중에 나타날 므낫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는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들을 이러한 아합 가문의 딸과 정략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요단 동북편의 아람을 무찌르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은 이 전투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합니다. 아합이 악한 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와 동맹을 맺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

다.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북쪽으로는 신흥국가인 앗수르가 세를 확장시킬 때였고 또한 이들의 잔학함이 소문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요단 동북편의 아람을 정복하여 성읍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사밧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남 왕국 유다의 4대 종교 개혁자에 포함되는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판과 나라의 판을 깨뜨리기 원치 않으셔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많은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합과 결탁한 것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길을 벗어나 갓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뉴스에서 이번 설 연휴에도 갓길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어 펑크 난 자동차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직원과 함께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타이어를 갈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날 때의 사망률은 11%라고 합니다. 그러나 갓길에서 사고가 나면 사망률은 40%로 올라가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랑스 파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탔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학생들이 내렸습니다. 거기 작은 언덕이 있어서 올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면 버스기사가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정반대입니다. 연휴 때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돗자리를 깔고 밥을 먹거나 그늘에서 잠을 자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러한 갓길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호사밧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던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갓길로 들어선 결과로 남 왕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달랴로 인해 남 왕국에도 북 왕국처럼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2살짜리 어린아이 하나를 빼놓고 다 진멸시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갓길 참사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다가 갓길로 접어든 예는 다윗 왕 자신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밧세바-우리야 패턴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길로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마음에서 눈앞에 있는 아내 사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로 붙은 상태에서 아내를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붙잡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삭을 바라보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붙은 상태에서 육체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믿음을 생활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존재 이유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생활화가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길은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붙잡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에 대해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 갓길로 들어섰다가 가장 큰 참사를 당했던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우리야 패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마음에 다른 것을 담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의 일등자리에서 밀려나십니다. 하나님이 밀려나셨음을 깨달았다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어린양이 번제단에서 죽고 있음을 떠올렸어야만 했습니다. 목욕하던 여인을 탐하게 된 마음을 얼른 죽임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일등자리로 모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갓길로 빠져나가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마음으로 붙잡았더라도 포기했을 텐데,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었기에 목욕하던 여인을 얻기 위해 그대로 추진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인 우리야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육체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들에게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갓길로 빠지게 됩니다. 갓길로 빠져서 첫 번째로 들어온 것에 마음이 반응하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불행한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예 갓길이 도로인줄로 알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또한 선민들에게도 이런 일이 순간순간 일어나기에 여호사밧 왕도 갓길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던 때에는 밧세바-우리야 패턴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밧세바와 동일하게 심히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에 골리앗에 대한 무서움이 마음의 일등자리를 차지하려는 순간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골리앗을 보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모든 전쟁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선민들의 아버지이심을 깨닫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심히 증오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있을 때에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에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권고하였음에도 다윗은 심히 증오스러운 원수인 사울보다도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자괴감이 들게 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압살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심히 모욕적인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이러한 다윗의 길을 걸었으나 갓길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치러가자는 요청을 할 때에 여호사밧은 쾌히 승낙하며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기 전이나 아니면 왕이 된 후에 마음에 늘 과제로서 작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이전의 왕들은 어떤 왕도 분열된 남북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앞선 왕들보다도 이것을 큰 과제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에서 정략결혼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혼에 근거해서 남북이 합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며 아합과 공유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입을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람을 쳐서 그곳에 수비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즉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이 일등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갓길에 접어드는 방식이 밧세바-우리야 패턴이었습니다. 육체의 오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재료들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생겨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고, 골리앗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증오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으며, 압살롬처럼 자괴감이 들게 하는 존재일 수도 있으며, 시므이처럼 모욕감을 느끼게 하

는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경우는 이렇게 오감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들에 의해 갓길로 빠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랜 시간을 두고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가운데 얻게 된 민족의 통일이라는 정당성이 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정당성 패턴이 우리를 갓길로 빠지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밧세바-우리야 패턴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듯이, 여호사밧 왕의 정당성 패턴 또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라사랑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라가 마음에 먼저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되거나 다윗의 길과 같은 믿음 상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나라보다도 하나님께 붙은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에 대한 판단을 따라 기도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의 정당함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정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마음은 하나님보다 가족 사랑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갓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족 사랑보다도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와 가족과 직장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도 갓길 참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갓길주행이나 갓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밧세바-우리야 패턴으로 오감이 포착하는 것들이 마음의 일등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정당성 패턴으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정당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내 마음에 일등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일등자리를 유지해드린다면 결혼도 사업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갓길로 접어들려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이 인생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다윗의 밧세바-우리야 패턴과 여호사밧의 정당성 패턴으로 하나님의 일등자리를 노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